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by the people'의 위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허리 굽혀 다가오는 후보자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허세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번 6.4 지방선거는 참으로 침울하게 치렀다. 세월호의 침몰은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허상이 낱낱이 노출된 참담한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슬퍼하고 분노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공직자와 정치인을 비롯한 소위 지배 엘리트에 대한 절망도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평형수'의 부재는 결국 세월호의 침몰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의 성장과 향해서 등을 새롭게 뻗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6.4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평형수'

절망 속에서 지방선거가 끝났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그만큼 성장과 항해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세월호의 침몰과정에서 보여준 성장과 항해사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되새기고 싶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주 회자되던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가 새삼스러이 연 곁된다. 한국의 정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미국의 교육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P. J. Palmer)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으로 국내출판)"에서 이 시대의 정치를 '비통한 자들의 정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정치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치유를 '마음수행'의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성패를 마음 수행에 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물리적, 제

도적 인프라보다 귀중한 것이 민주적인 정치사회를 창출하는 '마음공부'라는 것이다. 흔히 마음공부에 몰두하는 사람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는 자로서 속세에서 먼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파머는 내면과 외면을 분리시키는 생각 자체가 지금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뿌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온갖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다. 당위와 현실의 비극적 간극 사이에서 비통한 자들이 된다.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실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이 비통함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느냐에 있다. 여기서 마음수행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마음수행의 핵은 '부서져서 흩어지는 것(broken apart)'이 아니라 '부서져서 열리는(broken open)'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가슴 아프게 우는 것 이라.

지금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고 깨져 있다. 부서져서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다. 결국 우리는 분노와 파멸의 늪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복합성과 모순을 끌어안을 위대한 능력으로 열린다면 그 결과는 새로운 희망의 마당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열린 마음이 되는 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번뇌와 모순을 긴장감 있게 포용하면서 자비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라.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여 인간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적인 기획이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계를 만들 지혜와 용기를 생성시키는 원천이다. 비통한 사람들의 마음수행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와 민주주의의 '평형수'이다. 그래서 비통한 사람들의 이번 선거는 범상치 않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문화재 도난 줄이는 성보 백서 발간

조계종 문화부가 도난 문화재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최근 경매장서 잇달아 도난된 문화재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도난백서까지 새롭게 제작할 계획이다.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적 크게 일차 한층 더 강화할 목적이다. 이에 현재 조계종 문화부측은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중앙박물관 직원들이 그동안 모아온 도난목록 대조작업중이다. 향후 호법부와의 연계해 도난당한 성보 문화재 정보도 정리한다. 조계종이 그동안 도난문화재 관리 노력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84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불교회화, 불교조각, 탑과, 석등, 불교공예, 전적, 경관 등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백서를 발간했다. 또한 지금까지 총 300여 점의 도난문화재 현황도 파악했다. 물론 도난시기, 유동경로 등에 대한 기록부족으로 회수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백서가 발간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거래되는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도난품 거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성보 도난도 줄어들 것이다. 문화부가 노리는 효과도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도난 백서의 발간은 도난 문화재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조계종 문화부는 5월 29일 <도난백서> 등을 토대로 전시전 물품 모니터링을 통해 경매 직전 도난문화재를 발견해 회수했다. 이 모두가 도난 백서가 있어 가능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가 최근 발간한 <성보> 9호를 보면 조계종이 사찰문화재 실태파악, 도난백서 발간 등에 나선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10건에서 4건 이하로 성보문화재 도난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발간 이후 공항과 항만, 경찰서 등에 배포돼 도난문화재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방지됐기 때문이다. 감시 관리를 더하면 분명 더 줄을 것이다. 백서 발간을 계속 충실히 보완해줄지 바란다.

청소년 출가 장학제도는 인재불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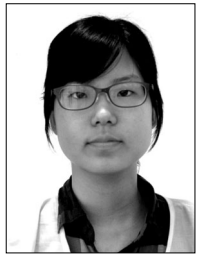
출가자 감소와 고행화 해결은 한국불교의 큰 숙제이다. 인재가 줄고 나이가 드는 것은 한 집단에 있어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출가 인재의 감소는 너무 뚜렷하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가자는 476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고 있는 중이다. 실제 2011년 268명이었던 출가자수는 2012년에는 219명으로 푹 떨어졌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이 젊은 인재의 출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 중 하나가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제정, 8월에 공포됐으며, 이후 일부 개정과정을 거쳐 올해 4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등록 청소년 출가자들은 다양한 장학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특별법에 의거해 만 13~19세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소년출가자들은 행차교육과정 중 일상·입문·본사교육이 면제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등 중립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 19~30세 청년 출가자도 사미·사미니 계 수지 후 승가대학에 진학할 경우 우선선발 특전과 중립대학에 등록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군법사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과 전역 후 공할사업 우선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모두 41명이다. 이들이 원만히 혜택을 받고 인권의 스승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종단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특별법을 통한 장학 사업이 끊기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인재는 하루 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투자만이 양질의 인재를 만들 수 있다.

발언대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를 마치며

지난 3월 2일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고제를 지내고 3일 법경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6월 10일 회향했다. 회향 후에는 진영 논리를 타파해낼 '대한민국 야단법석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100일간 순례를 통해 순례단이 느낀 점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화쟁의 꽃' 피워내겠습니다



순례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낯설었던 '화쟁',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길 위에서 언어먹고 자는 생활들이 익숙해질 100일 무렵에 순례가 일 단락됐다.

화쟁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내가 순례길에 함께 나설 마음을 먹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도법 스님께서 쓰신 <지금 당장>을 보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치유해낼 중재자 또는 조율자가 없다면 통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화쟁꾼'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싸움꾼이 되고 만다. 밀양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시골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전사가 되어 마을을 지키고 계신 모습을 봤다. 그 속에서 그분들을 버려내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해온 연대의 방식으로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싸움을 멈추고 다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진 못했다. 일면적인 평가일지 모르지만, 화쟁 순례를 오기 전부터 수많은 한국사회의 갈등 현상들을 보면서 느꼈던 한계다. 그것을 나 자신의 한계로 성찰하게 되었을 때, 도법 스님의 통탄이 마찬가지로 나의 안타까움이 됐다. 사람들에게 '화쟁 순례'를 했다고 하면, 순례 동안 화쟁을 널리 펼치고, 참여한 갈등을 똑딱 해결해줬길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순례길에서 우리는 배우느라 바빴다. 소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바람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장에서, 갈등과 대립이 사람과 사회에 얼마나 아픈 일인지 배웠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싸움에 나선 사람들의 정의로움과 용기를 배웠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배움이 '화쟁꾼'으로서의 실력으로 쌓여기를 빈다. '화쟁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좋은 발을 일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100일 간의 순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내 몸짓 하나가 생명평화의 걸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 나오면 곁에 배어 나오면 곁으로 드러나고 곁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가 되고 변화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순례 중 잠시 짬이 나 본 영화 <역린>에 상책(왕의 서책을 관리하는 직책)의 대사다. 정유역변이라는 모티브로 상상이가미된 픽션영화이긴 하지만 순례 중인 나에게서는 또 하나의 순례로서 다가왔다. 극중에서 정조 즉위 1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정조는 '중용' 스물세 번째 장의 구절을 이용해 메시지를 던진다. 순례를 마무리 할 때가 돼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순례에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를 옮겨준다. 순례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출발할 때를 돌아보면 원효스님의 '화쟁' 정신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길에서 배움을 얻었다는 마음만, '100일이란 시간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도 절반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마음으로 배우며 '화쟁'의 씨앗을 심고 크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걷다보니 나에게도 내가 만났던 상대에게도 작지만 변화가 있었다. 순례단이 순례를 시작하고 마칠 때 마음을 모았던 생명평화 100배 서원 절명상이라는 순서가 있다. 서원 중에는 "내 작은 몸짓하나하나가 생명평화의 큰 걸음"이라는 서원이 있다. 비록 서툴고 쉽지 않았지만 순례 때처럼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전국의 순례단과 함께 심은 화쟁의 씨앗이 아름답거나 혹은 축축 자라나리라 믿으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다.

성유진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분대

박상진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간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용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개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
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과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간 강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